

병원중심 가정전문간호사의 역할인식, 역할갈등 및 직무만족

정미영(삼성서울병원)

김순례(가톨릭대학교간호대학)

본 연구는 병원중심 가정간호사업에 종사하는 가정전문간호사들의 역할인식과 역할갈등 및 직무만족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전국 의료기관 중 가정간호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병·의원 63개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가정전문간호사 154명이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3년 5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35일간이었으며, 연구도구는 기존의 역할인식(강성희, 1988), 역할갈등(박상연, 1998), 직무만족(배분희, 2001) 측정도구를 수정, 보완 하여 사용하였으며, 도구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각각 .80, .89, .83 이었다. 자료분석은 SPSS program을 사용하였으며, t-test, ANOVA, Bonferroni 사후검정과 Pearson '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적용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가정전문간호사의 역할인식은 평균 평점 4.47 ± 0.41 (5점 만점)이었으며, 하위 영역별로 자질 4.71 ± 0.43 점, 치료적 간호 4.52 ± 0.55 점, 사회심리 간호 4.47 ± 0.43 점, 관찰 및 조절 간호 4.39 ± 0.45 점, 신체적 안위 간호 3.94 ± 0.53 점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역할인식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직무관련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없었다.

2. 가정전문간호사의 역할갈등은 평균 평점 3.87 ± 0.61 (5점 만점)이었으며, 하위 영역별로 윤리적 갈등 4.26 ± 0.51 점, 환경요인 3.94 ± 0.63 점, 역할모호 요인 3.86 ± 0.60 점, 능력부족

요인 3.67 ± 0.65 점이었다. 가정전문간호사의 역할갈등은 차량지원 여부, 현 직업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 가정전문간호사의 직무만족은 평균 평점 3.33 ± 0.71 (5점 만점)이었으며, 하위 영역별로 전문적 지위 3.91 ± 0.64 점, 상호작용 3.70 ± 0.59 점, 자율성 3.51 ± 0.59 점, 의사-간호사 관계 3.51 ± 0.59 점, 행정 3.03 ± 0.76 점, 업무요구 2.91 ± 0.85 점, 봉급 2.53 ± 0.81 점이었다. 직무만족은 가정간호 종사경력 7년 이상 군이 1년 미만 군보다 높았고, 행정조직상 병원장 직속의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경우, 이직의도가 없는 경우, 그리고 가정간호를 선택한 동기가 적성에 맞고, 흥미가 있다고 응답한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4. 역할인식과 역할갈등, 역할인식과 직무만족 사이에는 유의한 순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역할갈등과 직무만족 사이에는 역상관관계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병원중심 가정전문간호사의 역할인식 정도는 매우 높아 직업의식이 뚜렷함을 알 수 있었고, 직무만족 정도는 경력이 많고 근무기관의 조직구조가 독립적일 때 높았다. 그러나 업무지원 체계가 취약함에서 오는 역할갈등이 높은 편이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행정적, 제도적 근무조건 개선이 요구된다.